

임원 후보 출마의 변(辯)

안녕하십니까.

이번에 임원 입후보자로 출마하고자 하는 김유라 프로입니다.

저는 2003년에 한국에서 프로자격을 받고 미국에서 8년정도 Futurestour와 usopen등 미국에서 개최되는 멀티시합들에서 많은 경험을 쌓은 후 부족했던 공부를 계속하기 위해 2011년도에 한국으로 귀국하였습니다.

귀국 후 이화여자대학원에서 스포츠 심리학 학위분야인 운동행동 실험 연구실에서 석사과정을 밟으며 또 다른 꿈을 이루기 위해 앞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제가 이 자리에 선 이유는, 우리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가 계획하고 있는 나눔의 경영 실천을 통해 선수들이 어디에서나 어느나라에서나 존경받는 여자골프협회만 이미지를 심어주고 싶어서입니다. 지금 우리 골프협회는 선배님들의 이끌어 주심 하에 어디에도 두쳐지지 않는 협회로 거듭나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이전 한명의 선수들의 의견도 더 잘 수렴하여 친구같은 협회가 되어 어디에서든 선수들의 입장에서 서서 도와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미국에서 지내온 시간동안 보고 배운 것들과 현재 하고 있는 공부를 토대로 한국 여자 프로 골프 협회에 골프 전문가를 육성하는데 있어서 교육프로그램의 개발과 정비를 계획하는데 조금이나마 외국으로 진출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선수들과 한국여자프로골프협회에 도움이 되고자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부족하지만 저에게 선수들을 위해 뛸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면 선수들을 먼저 생각하고,

선수들을 위해 뛰는 임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2014년 3 월 6 일

작성자 : 김 유라 김유라